

## “한국교회 문제점, 프로그램 부족이 아닌 ‘관계의 소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일 ‘2026년 코칭목회 계획 세미나’ 성료

대한기독교교육협회(이사장 신상범 목사)가 주최한 ‘2026년 코칭목회 계획 세미나’가 2일 서울 충신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코칭’이라는 새로운 목회 방식이 어떻게 교회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첫 강의로 나선 이진호 목사(충신교회 담임)는 ‘코칭 목회: 미래 목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7대 위기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코칭 기반 목회 생태계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바꾸면 교회의 일부가 변하지만, 리더를 바꾸면 교회 전체가 변한다”라며 교회 조직 전체를 재설계하는 코칭목회의 실제 모델을 3단계로 구체화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충신교회는 사역리더십 조직구조를 전면 재정비해 ▲소그룹 체계 재구성 ▲교회학교·청년부가정사역의 통합 운영 ▲양육교육 커리큘럼의 코칭화 ▲돌봄·상담 기능의 분산 등으로 사역을 재편했다. 이진호 목사는 “사역이 교

역자에게 집중되는 수직 구조를 해체하고, 평신도 리더들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 구조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신교회는 예배-소그룹-양육-가정사역을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하는 ‘관계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그룹은 전달식 강의를 폐기하고, 질문-경청-나눔 중심의 코칭형 구조로 전환했다. 청년부는 진로·일터 코칭, 감정 코칭, 11 성장 대화 등을 중심으로 체질을 바꿨다. 교회학교는 교사·부모사역자가 함께 하는 통합 코칭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진호 목사는 “다음세대 위기는 프로그램의 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다. 코칭은 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충신교회는 당회·위원회·소그룹 리더 교육까지 모두 코칭 기반 방식으로 전환했다.

모든 리더는 경청-질문-피드백-목표 설정-점검의 ‘5대 역량’을 훈련받고 회의는 ‘의사결정 중심이 아니라 참여형과정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는 “평신도가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주최한 ‘2026년 코칭목회 계획 세미나’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움작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목사는 “코칭은 단순한 상담 기법이 아니라 교회 생태계를 새롭게 세우는 영적 프레임”이라며 “충신교회가 지난 10년간 이 모델을 적용하며 체질이 바뀐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강의로 나선 홍삼열 목사(한국코칭선교회 대표)가 ‘리더십 전환과 회의 진행’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오늘날을 ‘VUCA 시대’로 규정하며, “교회가 여전히 과거의 지사명령형 리더십에 머문다면 다음세대를 잃을 뿐 아니라 내부 동력도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목사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기 ▲심리적 안전감 조성 ▲참여 중심 회의 구조 도입 ▲부정적 의견을 리스크 신호로 재해석하기 등의 코칭 기반 회의 기술을 제시하며, “회의를 바꾸면 리더십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 문화가 바뀐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전경호 목사(다음세대코칭센터 대표)는 다음세대 교육의 본질을 “정답 전달에서 질문 기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립러닝, 퍼실리테이션, 레고시리얼스플레이 등 현대 교육 기법과 코칭을 결합한 실제



이진호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적용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청년 사역에서 ▲감정 코칭 ▲진로·소명 코칭 ▲관계 코칭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정 사역에서도 부모-자녀 간 코칭 대화가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유윤중 목사(대한기독교교육협회 사무총장)는 소그룹 사역에 코칭목회를 적용한 실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도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다”며 소그룹 리더의 역량을 교회 건강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유 목사는 충신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

회의 사례를 인용하며 ▲경청-질문 중심의 리더 대화 ▲참여형 소그룹 설계 ▲리더 코칭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코칭 기반 소그룹의 실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소그룹 리더 한 명이 바뀌면 한 그룹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교회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이명관 목사(진주교회)는 코로나 이후 교회가 맞은 혼란 속에서 ‘코칭목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지 자신의 사역 경험을 통해 풀어냈다. 그는 “코칭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프레임”이라며 “교회가 다시 꿈꾸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모든 역할을 떠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이나 조직력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소멸’이며, 코칭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실제적 도구”라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는 오는 11일 홍성교회(충청호남), 16일 양정중앙교회(영남)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 신용대·박승주 목사 등 제30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수상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2일 시상식 개최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이사장 이규학 감독, 총재 엄기호 목사,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 이하 세복협)가 2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5 제30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국기독교선교대상심사위원회가 주관했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김수읍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강성희 목사의 성경

봉독, 하늘꿈 연합중앙단의 특별찬양, 총재 엄기호 목사의 설교, 상임부총재 윤보환 감독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말의 힘(민 14: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엄기호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려면, 창조적·경쟁·생산적 언어가 필요하다.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며,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게도 한다”며 “그리고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인생의 키는 말에 있다. 복되게 말하며 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삶을 평탄케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좋은 선택을 돕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행복해지게 만들고 선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입술을 단단히 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언어들을 항상 준비하여 성령 안에서 성경을 따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아진 2부 시상식은 사무총장 황연식 목사의 사회로, 영상보고, 선교대상시상, 꽃다발 증정, 축하인사, 축하, 수상자 인

사, 케이크 커팅식, 알림 순서로 진행됐다.

선교대상시상에는 이사장 이규학 감독이 수상자들에게 상패수여를 하고, 총재 엄기호 목사가 메달수여를, 대표회장 김영신 목사가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상자에는 △문화화재상에 신용대 목사(예수리협성신학연구소 이사장, (사)월드비전 인천협의회 연합회장, (사)나눔과 기쁨 인천협의회 상임대표, CTS 기독교 경인방송 이사장, 하늘꿈교회 담임) △부흥사상에 박승주 목사(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이사장,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주)LS건축사사무소 회장, 새일교회 담임) △선교사상에 오석재 선교사(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 예장고신(대양주, 인도네시아) 선교사) △특수선교 탁복민선교대상에 태영호 전 국회의원(전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코리아 대표) △평신도지도자대상에 박홍자 장로(순복음원당교회 원로장로) 등이다.

축하 인사말을 전한 이사장 이규학 감독은 “한국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권위와 전통

을 이어가는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은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가려 시상한다”며 “지난 2019년까지 제28회 시상식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수상하신 다섯 분 모두가 각 분야에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오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다. 축하드립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서 남북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확고히 하여 세계선교에 매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상 소감을 전한 신용대 목사는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해 가길 바란다



세복협 ‘2025 제30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 후 기념촬영. ©장지동 기자

다”고 전했고, 이어 박승주 목사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계기로 주님을 닮아 복음 전파에 힘쓰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석재 선교사는 “모든 선교사임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며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선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그리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2016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해서 올해가 9년 차가 되었다. 최근 저는 전국을 다니며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도 북한엔 많은 사람들

이 처형 및 순교를 당하고 있다.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소감자로 나선 박홍자 장로는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과분한 큰 상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선교하라고 주신 것 같다”며 “기쁨과 함께 아기가 무겁다. 이 선교 대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것이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행사는 상임회장 최길학 목사의 오찬기도, 기념촬영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올림픽공원이 바로 앞! 강동구청역 초역세권!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롯데월드타워

한성백제역 평화의 문 몽촌토성역

한강 서울아산병원 잠실대교

강남루한강공원

성내유수지체육공원

강동구청역

성내천 강동대로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PALACE 올림피아드

### 서울 도심에 전원 아파트!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

- 강동구청역 도보 5분
- 초·중·고·대학교 도보권
- 아산병원 1.5km
- 집앞은 올림픽공원

KYOBO 교보자산신탁 문의 02.486.4388

서울 에스아이팰리스(주) (주)엔앤건설











# 수지성산교회·라이프워커, ‘한 생명을 위한 실천’ 모임 시작



‘한 생명을 위한 실천’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프워커

수지성산교회와 라이프워커가 최근 수지성산교회에서 ‘한 생명을 위한 실천’ 모임을 시작했다.

이번 모임은 지역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생명을 살리는 일상 속 실천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라이프워커 측은 전했다.

이번 협력을 준비한 라이프워커 최다솔 대표는 강의를 통해 ‘한 생명을 위한 실천’으로 길거리 전도와 생명캠페인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거리에서 영적 생명을 살

리는 전도와, 태아의 육적 생명을 살리는 생명캠페인을 함께 하는 것은 모두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천”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간증을 바탕으로 전도지에 ‘1분 스토리’로 작성하며 길거리 전도 준비했고, 태아발바닥 카팅과 함께 생명메시지를 전하는 연습을 하며 생명캠페인을 준비했다.

수지성산교회 담임인 한상필 목사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주시려고 오셨다. 이 생명을 전하는 분들이 복되고

아름답다. 생명을 전하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라고 전했다.

이 교회 한예루 집사는 “청소년 아이들이 본인의 간증을 전도지에 적어서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다. 매달 길거리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분 스토리’를 적어서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라이프워커와 수지성산교회는 “앞으로 라이프워커와 수지성산교회는 “앞으로 로도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지미션, 전국 교회와 함께 ‘선교바자회’ 확산

기독교 선교단체 지미션(대표 박충관)이 올해 전국 각지의 교회와 협력해 ‘지미션과 함께하는 바자회’ 캠페인을 전개하며 선교 동참과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목포 등지에서 열린 2025년 바자회는 소형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지역 사회와 직접 연결되는 장으로 기능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바자회에서는 교회 성도와 지인들의 기부 물품에 더해 지미션이 제공한 새 상품도 함께 구성돼 풍성한 판매가 이루어졌다. 참가 교회들은 단기선교 프로젝트나 베이비박스 사역 지원 등 다양한 목적의 선교 재정을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고, 지역 주민과의 접촉면도 넓히며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선교사 지원, 지역 복음 사역, 청소년 음악회 등 단체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올해는 새생명교회와 사감의교회를 포함한 총 5개 교회 및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교회의 한 목회자는 “지미션의 물



선교바자회 현장의 모습. ©지미션

품 지원 덕분에 생활용품부터 의류·잡화까지 다양한 품목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바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아 교회 상황에 맞게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며 “절차도 간편하고 담당자의 안내도 친절했다”고 전했다.

지미션 사역팀은 “더 많은 교회와 단체가 이 사역에 동참해 선교와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바자회 참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미션과 함께하는 선교바자회”는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교회나 단체, 청년부, 지역 복음화 행사를 계획하는 공동체에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과 안내는 지미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미션은 해외 선교사 및 위기 목회자 후원뿐 아니라 독거노안보육원 등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다.

노형구 기자

##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과 핵심 전략 제시한다

바이블백신센터, 청년·청소년 핵심파일 세미나 개최

바이블백신센터(원장 양형주 목사)가 다음세대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청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와 ‘청소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센터 측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급변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사역자들이 직면한 실제적 고민을 다루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사역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제7회 청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

제7회 청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다시 세워지는 사역의 방향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청년사역의 변화된 흐름을 짚고 2026년을 향한 지형도와 사역 전략을 제시한다.

강사로 나서는 양형주 목사는 천안중앙교회와 동안교회에서 청년사역의 부흥을 이끌며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인

WEEP를 세웠고, 현재는 장신대 신약학 겸임교수이자 바이블백신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3년 개척한 대전도안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와 교회교육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이다. 그는 청년세대의 신앙적 특성과 사회적 흐름을 분석하며, 사역의 핵심 원리와 규모별 적용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이번 시간이 청년사역의 방향을 잃기 쉬운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6회 청소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

이러 제6회 청소년사역 핵심파일 세미나가 오는 12월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청소년 사역의 실질적인 고민과 돌파구’라는 주제로, 현장의 가장 절실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역의 본질과 실제적 접근법을 다룬다.

강의는 청소년사역 15년 경력의 정석원 목사가 맡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을

대비한 청소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AI 시대 속에서 변화하는 청소년의 신앙과 정서를 이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어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살피고, 교사와 가정의 함께 동역하는 구조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전도안교회 이범수 전도사가 사례 발표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역의 흐름과 돌파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청소년사역이 단순한 부서 운영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역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주 목사는 “청년·청소년 사역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분명한 방향과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다음세대 사역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바이블백신센터(042-822-8009) 또는 홈페이지(b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 제주성안교회, ‘크리스마스 빌리지’ 개막

제주에 성탄 분위기를 물씬 전하는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제주성안교회(담임 류정길 목사)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뒤 큰 호응을 얻자 올해도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따뜻한 연말 문화를 선사하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성탄의 의미를 접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비누 만들기과 양말목 카팅 제작 체험, 뮤지컬인형극댄스 공연 등 남녀노소가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이 다채롭



제주성안교회의 ‘크리스마스 빌리지’ ©제주성안교회

게 준비됐다. 교회 마켓에서는 공예품과 먹거리도 판매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콘텐츠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대부분의 활동이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됐던 데 비해, 올해는 예배당과 부속 공간을 적극 개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행사 수익금은 연말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지난해 마련된 1000만 원은 제주소아암재단과 제주보육원 등 지역 복지기관 7곳에 전달돼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제주성안교회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성탄을 테마로 한 지역 문화 행사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로, 올해도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구 기자

## 구리시 새음교회, 취약계층 돕기 성금 기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근 교문1동 새음교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2,7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새음교회 이문장 담임목사는 “한과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새음교회는 매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새음교회는 지난해에도 2,3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노형구 기자



성금 기탁 후 기념촬영에 임한 성도들의 모습. ©구리시


**동아제약**


동아보감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아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나이지리아 대통령, 전국적 납치 급증 속 국가 비상사태 선포

300명 학생 피랍·성직자 사망까지 이어진 잇단 공격에 경찰·산림경비 대규모 출원 지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잇따른 대규모 납치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고 최근 보도했다. 최근 3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꺼번에 납치된 사건과 성직자가 납치 중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블라 아메드 티누부 대통령(사진)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이번 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존에 승인된 3만 명 외에 경찰관 2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특히 무장 폭력이 집중된 지역에 신속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영국 기반 기독교 인권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대통령은 또한 국영 산림경비대

채용을 승인하고, 각 주에서 운영 중인 지역 보안조직에도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VIP 경호에 배치돼 있던 경찰 병력을 전면 철수해 본래 치안 임무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으며, 전국적으로 방목형 소 사육(오픈 그레이징)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목동 세력들에게 즉각적인 무기 반납도 요구했다. 이어 종교시설에는 보안 강화 요청이 내려졌고, 각 주에는 기숙학교를 외딴 지역에 배치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달됐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해 온 성공회 성직자 에드윈 아치(Rev. Edwin Achi)가 납치 한 달 만에 사망한 사실이 수요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 10월 28일이 하(현지시간) 카두나주 니시 지역 자택에

서 아내 사라 아치와 함께 무장 괴한에게 납치됐다. 나이지리아 성공회는 성명을 통해 그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며 “그의 헌신적 사역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라는 현재까지도 감금된 상태이며, 부부의 딸도 함께 납치됐으나 최근 공개된 생존 증명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 조직은 아치 부부의 석방 조건으로 6억 나이라(약 41만 5천 달러)의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는 관련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직후 아치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의회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 직후 나온 조치다. 상원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납치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가해자에 대

한 사형 집행을 제안했다. 또한 치안 부대 장비 부족, 정보력 부재, 군경 조직 내부 침투 의혹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전 하원의 부의장 이드리스 와세(Idris Wase) 의원은 북중부 지역이 나이지리아 전체 폭력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보코하람(Boko Haram)과 범죄조직 관련자들이 군·경 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회 토론에서 언급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지난 11월 21일 니제르주 파피리 지역의 세인트메리스 가톨릭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303명 학생과 교사 12명 납치 사건이다. 대부분이 9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무장 괴한들은 새벽 기숙사로 난입해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CSW에 따르면 현재 253명의 학생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대량 납치 사건 직후, 피랍된 세 자녀를 둔 한 아버지 앤서니 무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최근 2주 동안 보고된 다른 사건도 잇따랐다. 11월 17일 케비주 마가의 한 공립 학교에서 26명의 여학생이 납치됐고, 티누부 대통령은 11월 25일 이들 중 24명이 석방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석방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11월 21일 과라주의 에투쿠 지역 교회 예배 중 괴한들의 공격으로 신자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납치됐으며, 사흘 뒤 인질 전원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도 아부자 인근 부와리 지역 기단-비지미 마을에서 무장 괴한들이 두 가정을 급습해 여학생 6명과 16세 소년을 납치했다. 같은 날 니제르주 의 웅구완-카위에서는 입산부 4명과 여

러 아이를 포함한 20여 명의 농부가 무장세력에게 끌려갔다.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내 납치 급증의 배후로 극단주의 조직, 범죄 갱단, 무장 풀라니 민병대 등이 결합된 복합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국제종교자유 옹호 의원모임(APPG-FoRB)은 북부 지역 기독교 공동체가 보코하람, ISWAP, 풀라니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라쿠라와(Lakurawa)’라는 새 무장 조직이 북서부에 등장했다. 오픈도어즈(Open Doors)의 ‘2025 세계 감시 목록’ 보고서는 이 단체가 알카에다 계열 사할 기반 JNIM과 연계돼 있으며 고급 무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4,476명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최승연 기자

##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최소 수십 명 사망... 정부 “전국 비상 대응”

홍수·산사태 동시 발생... 이재민 급증하며 구조 총력전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리랑카 전역에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몰고 온 폭우와 산사태, 대규모 침수로 사실상 마비되며 사망자는 이미 3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와 고립된 주민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국가 전체가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CDI는 이번 사이클론이 최근 수십 년 사이 스리랑카를 강타한 기상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지금까지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완전히 붕

괴됐고, 10만 명 이상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피소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전력망은 곳곳에서 끊겼고 수도물 공급도 멈춰, 전국의 3분의 1가량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잃은 상태다. 당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여러 지역은 여전히 고립돼 있으며 생존자 구조가 늦어지는 곳도 많다.

특히 강 수위가 계속 상승한 켈라니강 일대는 추가 범람 위험이 커 대피령이 유지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평생 이런 홍수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도로가 휩쓸리고 다리가 붕괴되면서 구조 인력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런 최악의 재난 상황 속에서 스리랑카국가복음주의연합(NCEASL)은 “교회

와 기독교 사역자들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러 지역의 교회에는 예배당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었고, 성도들은 각자 대피소로 흩어져 공동체 자체가 일시적으로 해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NCEASL은 성명을 통해 “사이클론 디트와는 스리랑카 전역의 공동체를 무너뜨렸다. 수많은 가정의 삶의 기반을 잃었고,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생계와 사역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CEASL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목회자·선교사·교회 사역자 500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식량·건조 식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한 LKR 30,000(약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긴급 구조 꾸러미를 배포하고 있다. NCEASL은 “100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한 가정의 최소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다시 지역사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된 곳은 캔디(Kandy)와 바둘라(Badulla) 지역으로, 산악 지형 특성상 연쇄적인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십 개 마을이 외부와 완전히 단

절됐다. 일부 주민들은 사흘 이상 식수와 식량 공급이 끊긴 채 구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은 “토사가 순식간에 밀려와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당시 충격을 전했다.

사이클론 디트와는 스리랑카 동부 해안을 스쳐 지나가며 강력한 비구름대를 남겼고, 몬순철과 겹치며 기록적인 폭우로 이어졌다. 스리랑카 당국은 “매년 우기에는 폭우가 내리지만, 이번처럼 전국적

인 피해로 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CDI는 스리랑카 정부가 이미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을 공식 전달했으며, 해외 거주 스리랑카인들에게도 고국의 재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 당국은 앞으로도 강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해 스리랑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Youtube Screenshot / France 24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유엔 인권대표, 파키스탄 개헌에 중대한 우려 제기

사법 독립 약화·군 면책 확대 비판... 파키스탄 시민단체도 “권력 집중 심각” 경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이 최근 단행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의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대표는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개헌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종교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 구조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튀르크 대표는 파키스탄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 분립은 법치의 근간이며,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모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은 지난 11월 13일 채택됐으

며, 핵심 내용은 연방합법재판소(FCC) 신설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법원이 담당하던 헌법 관련 사건은 FCC로 이관되고, 대법원은 민형사 사건에 집중하도록 구조가 재편됐다. 또한 판사 임명·승진·전보 절차도 수정됐는데, 튀르크 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구조적 독립성을 흔드는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이미 FCC의 초대 대법관들을 임명한 사실은 정치 개입 가능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튀르크 대표는 “이러한 변화들은 사법부를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결국 법 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되지 못하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과 고위 공직자에게 형사 면책을 부여한 조항도 논란이다. 개헌안은 대통령, 야전원수, 공군 원수, 해군 원수 등 일부 직위에 대해 종신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튀르크 대표는 “이는 군과 고

위 직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타격을 주며, 인권 체계의 핵심인 책임성을 약화한다”고 했다.

파키스탄 국내 인권단체들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파키스탄인권위원회(HRCP)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39회 연례총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헌이 “이미 취약한 민주 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드 이크발 부트 위원장은 27차 헌법 개정안이 사법부 전체 장치를 약화시키고, 행정부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HRCP는 또한 “공직자 종신 면책” 조항이 국소수 권력층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의회의 우월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회는 헌법 개정 권한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해 국민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CC 신설이 헌법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승연 기자



# 미주 평안 교회 감사절 찬양제... 5대 담임 박병열 목사

총 15개 팀이 출전, 매년 추수감사절 찬양제 개최

지난 11월 23일 주일 오후 2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대예배실에서 2025년 추수감사주일 찬양제가 열렸다. 김연수 장로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찬양제는 유치부에서부터 최연장자 그룹인 에녹 선교회까지 각 기관을 대표하는 총 15개 팀이 출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미주평안교회는 찬양제를 가지며 영어권인 교육부서와 장년 그리고 노년 부까지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갖는다.

이날 찬양대회에서 최종 1등은 영어권 청장년팀인 말투스가 차지했다. 재기발랄하고 힘찬 찬양을 준비한 말투스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1등을 차지했다. 말투스 외에도 영어권 중고등부(Youth)팀이나 한국어 청년부, 젊은 부부들로 구성된 디



행사를 기념하면서 단체 사진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모데-마리아 팀의 찬양과 울동이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은 3대 담임 송정명 목사, 4대(현) 담임 임승진 목사 그리고 5대 담임으로 결정된 박병열 목사(사진)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참가팀의 음악성, 청중의 반응 등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특



별 순서를 가졌는데 최헬렌 권사의 로마서 8장 암송과 3대 담임목사 가정의 특별 찬양이 찬양제의 품격을 더 높였다. 한편 미주 평안교회는 지난 11월9일 전 성도가 투표에 참석해서 5대 담임 목사를 박병열 목사로 선출하고 담임 목사 이취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미주 평안교회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힘찬 도약을 기도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고 안성진 목사 가족 재단 주최 제28회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

고(故) 안성진 목사(시애틀연합장로교회 창립 목사의 가족 재단이 주최하는 제28회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린우오의 트리니티 루터교회(6215 196th St. SW, Lynnwood, WA 98036)에서 열린다.

‘머킬티오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서북미 지역 연발 대표 성탄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담아 오랜 세월 동안 한인들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 왔다. 청소년들과 음악을 사랑했던 고 안성



진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3년 시작된 이 콘서트는 안 목사의 가족과 서북미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음악회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연주, 합창,

성악, 오페라 가수들,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풍성하게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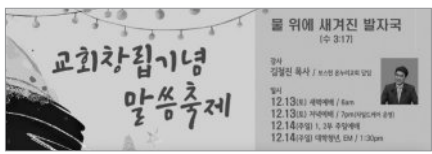
콘서트는 무료로 참석 가능하지만,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금 모금이 진행되며, 모든 기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탄 축제로, 지역 교회와 한인 사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 시애틀 온누리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말씀 축제 개최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김재형 목사)가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감철진 목사(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강사로 말씀 축제를 개최한다.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축제에서 감철진 목사는 12월 13일 새벽 6시 새벽예배, 같은 날 저녁 7시에 저녁예배, 14일에는 1부와 2부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에는 대학청년부



및 EM 집회를 인도한다.

교회는 “교회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감철진 목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에 힘써 온 목회자다. 특히 다민족다문화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세대를 연결하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를 이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돕는 균형 잡힌 말씀과 실제적인 적용 설교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한다. 김민선 기자

## 미주복음방송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생방송’ 은혜 속 마무리

전 세계 교회를 깨우는 영적 연대... 11월 21일 기준 74,510달러 모금

미주복음방송(GBC)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생방송’이 깊은 감동과 도전을 남기며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다. 이번 특별방송은 중국 당국에 체포·구금된 베이징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와 18명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과 지원,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의 생존과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 중국 가정교회 탄압 현실 드러나 베이징 시온교회는 2007년 김명일 목사가 개척한 중국 대표 가정교회로 40개 도시, 100여 개의 개척 교회, 약 1만 명의 성도가 모여온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공동체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국 당국이 지도자 38명을 일제히 체포했고 이중 18명은 현재 정식 기소되어 구금 중이다. 미주복음방송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중국 선교 현장을 이번 특별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집중 조명하며 전 세계 교회가 기도와 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안나 류 사모그레이스 진 자매동역자들 5일 동안 이어진 생방송에는 김명일 목사의 아내 안나 류 사모(류춘려)가 매일 출연해 시온교회의 성장 과정, 복음 확장의 실제,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과 중국 성도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전했다. 또한 미국 각 지역에서 김 목사와

동역했던 목회자·선교사들,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섬겨온 교회와 기관, 개인들이 연이어 참여해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시 깨우는 영적 부르심”이라고 한목소리로 고백했다. 방송 마지막 날에는 딸 그레이스 진 자매가 전화 연결을 통해 남가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아버지와 시온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시온교회 차세대 목회자이자 현재 시카고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Sean Long 목사도 연결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온교회의 영적 관점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눴다.

■ 생생하게 드러난 중국 가정교회의 믿음 방송을 통해 많은 청취자들이 처음으로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을 접하게 됐다. 수년간의 규제와 폐쇄 압박에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를 위한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믿음은 큰 영적 도전을 주었다. 옥중에서 전한 김명일 목사의 편지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담대함과 감사로 가득했으며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공동체에 전했다.

■ ‘마중물 헌금’으로 열린 은혜의 물길 이번 모금은 뉴저지초대교회, 한길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노회장 김대호 목사) 중부시찰 소속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축하연합예배가 오는 12월 7일 주일 오후 4시, 시애틀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성탄축하연합예배에는 시애틀찬

화, 미주복음방송, 그리고 태평양은행 이사장 이상영 장로의 ‘마중물 헌금’으로 시작됐다. 이후 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 참여하며 11월 21일 기준 총 74,510달러가 모금됐다. 모금은 11월 30일(토)까지 계속된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그동안 중국 선교의 안전을 위해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야 할 때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방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 예정된 ‘나눔On 희망On 콘서트’를 비롯해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연대의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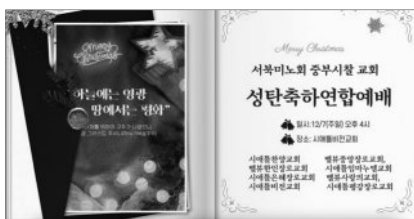
안나 류 사모는 “함겨운 시간이지만 결코 혼자서 아픔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영적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남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 속에 지낼 것이고, 석방 후 여러분 앞에서 감사의 간증을 드릴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모금 안내 및 다시보기 정보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생방송’은 마쳤지만, 모금은 11월 30일까지 계속되고, 후원문의는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해 동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KAPC 서북미노회 중부시찰교회, 성탄축하연합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노회(노회장 김대호 목사) 중부시찰 소속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축하연합예배가 오는 12월 7일 주일 오후 4시, 시애틀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성탄축하연합예배에는 시애틀찬



양교회, 벨류한인장로교회, 시애틀은혜장로교회, 시애틀비전교회, 벨류중앙장

로교회, 시애틀임마누엘교회, 벨류사랑의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등이 참여한다.

참여 교회 목회자들은 “성탄의 소망을 나누며, 서북미노회 중부시찰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 베델교회 UCI Sounds of the Season-Choral 콘서트

UCI 계절의 소리 - 합창(Sounds of the Season-Choral)콘서트가 12월 4일 저녁 7시 30분 베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Irene Messoloras 교수가 지휘를 맡는다.

클래식, 포크, 스피리추얼, 팝 등 시대를 초월하는 캐럴과 명절 명곡과 JS 바흐, 가브리엘 포레, 손 키르히너, 세실리아 맥도웰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음악을 선사하게 된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 FIM선교회 최광영 신임 이사장 “무익한 종·청지기 자세로 섬기겠다”

FIM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및 이슬람 세미나  
1일 충신대 주기철기념홀에서 열려  
직전 이사장 천환 목사 등에 감사패 전달

FIM국제선교회 신임 이사장으로 최광영 목사(베들레헴교회 위임목사)가 취임했다. 임기는 7년이다.

1일 충신대학교 제2종합관 2층 주기철기념홀에서는 FIM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및 신임 이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신임 이사장인 최광영牧사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으로 생명을 살리고, 가정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사명에 집중해 왔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베들레헴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GMS 이사로 세계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최광영 신임 이사장은 이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눅 17:7-10)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선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선교는 철학을 가지면 안 된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할 때, 선교에

대한 태도로 ‘선교는 하나님의 신발 끈을 묶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직업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의 자세, 우선순위가 분명한 이자세로 사역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로 FIM 선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다”며 짧고 굵은 각오를 전했다.

1996년 선교회 발족 당시부터 회장 김진웅 목사(1대 이사장)와 함께 공동 부회장으로 섬기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제2대 이사장으로 헌신한 천환 목사(예장고신 증경총회장, 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예일교회 원로목사)는 이임사에서 “저는 정말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사장직에서) 물러서지만 선교의 지상명령은 조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후방에서 끊임없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더 함께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천환 전 이사장은 또 “29년 전 하나님 앞에 ‘이슬람 선교를 향해 우리 한번 밀



최광영 신임 이사장(왼쪽)이 천환 직전 이사장(오른쪽)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지희 기자

앞이 돼 봅시다”고 한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많은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 유해석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 전 이사장 김진웅 목사님의 헌신과 이사님들의 노고가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새로운 이사장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이후가 너무 크게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 가장 큰 미전도종족은 무슬림으로, 무려 21억 명이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므로 FIM 선교회가 매우 소중한 선교단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또 “초대 이사장님인 김진웅 목사님이 토대를 놓으시고, 천환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일하시고, 선교회 발전을 위해 애써오셔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심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최광영 신임 이사장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이면 최고의 사역이 될 것”이라며 “현재 베들레헴의 최대 인구는 무슬림으로, 최 목사님 교회가 베들레헴교회이니 무슬림 선교를 해야 할 운명적 교회라 믿는다.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최 이사장님이 은퇴하시기 전 베들레헴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많

은 무슬림이 화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고 축하했다.

이날 FIM국제선교회는 신임 법인이사장 및 이사로 △이사장=최광영 목사(베들레헴교회) △서기=김은수 목사(온사랑교회) △감사=김성도 목사(창원우리교회) △법인이사=김용덕 목사(새생활교회), 박성호 목사(인천신광교회), 임동현 목사(아델포이교회), 이창용 목사(원당교회)를 위촉했다.

신임 후원 이사로는 김영주 목사(동대문제일교회), 류치형 목사(대구엘림교회), 박택영 목사(배곧동산교회), 손진우 목사(자양동교회), 안효진 목사(전민새생명교회), 이명규 목사(일산아름다운우리교회), 최성원 목사(서울중앙교회), 홍석균 목사(천안삼은대교회) 등 8명이 임명됐다.

FIM국제선교회를 위해 오랜 기간 몸심 양면으로 헌신한 천환 목사(예일교회 원로목사), 박기전 목사(인천사랑의교회 원로목사), 김성봉 목사(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전 안양대 신대원 원장), 노태진 목사(영동제일교회 원로목사)에는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예배는 이사 노태진 목사의 사회로, 이사 임동현 목사의 기도, 신임 이사장 최광영 목사의 설교, 김정민 목사(충신대 선교대학원의 봉헌 특송, 초대 FIM 이사장 김진웅 목사(전 칼빈대학교 총장)의 봉헌 기도 및 축도로 드러졌다. 이어 천환 목사가 신임 법인이사장 및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천환 목사의 이임사, 최광영 목사의 취임사, 감사패 증정, 신임 후원 이사 위촉식, 박성규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목사(충신대 문화인류학 전공주임교수)는 광고 안내를 전했다.

곧이어 키르기스스탄의 B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전했다으며, 2부 이슬람 세미나에서는 강재춘 박사(FIM 선교사)가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통한 다와에 관한 고찰’, 김요한 박사(FIM 선교사)가 ‘중세 이슬람 지배하 레반트 기독교의 변증과 선교적 함의’, 유해석 박사가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슬람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최광영 목사(FIM국제선교회 신임 이사장)=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 석사(Th.M),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Th.D), 국제문화대전대학원 교육학박사(Ph.D), 칼빈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산중앙교회 부목사, 행복한우리교회 위임목사, 대신대학교 교수, 충신대학교 운영이사,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예장합동 105회기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GMS 실행이사, 세계선교신학교 이사, 펠릭스선교회 이사장, 국제제자훈련원 CAL-NET 경기지역 부총무, 칼빈대학교 실천신학 조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 칼럼

## 일본교회의 현황과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上)

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는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 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았고, 1995년에 ‘헌신·아와지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을 겪으며 지역 복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번아웃(소진)을 겪게 되어, 2년간 목회 활동을 쉬었습니다.

그 후 다시 목회자로 복귀하여, 40대에는 오직 목회에 전념하며 사역했습니다. 큰 재해를 경험한 이후로는, 하나의 큰 회당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전략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세 개의 체

플과 약 30개의 소규모 커뮤니티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서는 교단의 이사장과 일본복음동맹 이사 등의 사역이 주어졌고, 지금은 60대의 끝자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일본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배워온 여러 가지 사역적 접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 일본 사회와 교회

먼저 일본교회와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급속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 1억 2,615만 명이었던 인구가 2070년에는 8,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

운데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11.9%에서 9.2%로, 15~64세는 59.5%에서 52.1%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8.6%에서 38.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일본은 20년 앞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독교(개신교) 교회 교인 수는 약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4%에 해당하며, 예배 평균 출석자는 약 28만 명으로 인구의 0.2%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목회자 부족과 교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불황과 지역 간 격차의 확대도 맞물려, 특히 지

방 교회들의 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일반적인 여러 조사에서 ‘종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베나 신흥 종교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선교를 위한 전략

그러나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목회자로 섬기며, 세 가지를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 1. ‘개인의 사역’에서 ‘팀 사역’으로

첫 번째는, ‘개인의 사역’에서 ‘팀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

회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교회 사역은, 정치로 말하면 소규모 정당이 난립한 상황 같고,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전체적인 전투가 아닌, 병력이 흩어져 각지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의 선교단체 수만큼 일본에도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자신들을 다른 그룹과 구별함으로써 정체성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체질을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는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예배당’이라는 사고방식에 고착되어 있고, 그 결과 한 명의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교회들은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예배당’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선교사·평신도가 함께하는 팀’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방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될 것



고다이마 마키오(오른쪽) 목사와 메구미 목사 부부

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느 지방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1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모두 저보다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 가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부터 인근 교회와 협력하여, 두 명의 목회자가 세 교회를 함께 섬기는 형태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고다이마 마키오(小平牧生) 목사(기독교계단 니시노미야교회, 뉴캐뮤니티 담임, 기독교계단 총회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 가톨릭 영화제작자, 기독교 유적지에서 촬영 거부당해



©pixabay

한 가톨릭 영화 제작자가 기독교 유적지에서 촬영 허가를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기독교 인권단체 '보이스 포 저스티스 UK(Voice for Justice UK)'가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에 우려를 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해당 논란은 영화감독 크리스천 홀든이 노섬벌랜드 벨퍼드 인근의 성 커스버트 동굴(St Cuthbert's Cave)에서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성 커스버트는 노섬브리아의 수호성인으로, 875년에 이 동굴에 안치됐다는 전통이 있다. 동굴은 영국의 유산을 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가 관리

하고 있다.

홀든은 스코틀랜드 멜로즈 수도원에서 노섬벌랜드 린디스판 첨가지 성 커스버트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성 커스버트의 길(The Way of St Cuthbert)'을 제작 중이었다.

그러나 보이스 포 저스티스 UK에 따르면, 내셔널트러스트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홀든의 촬영 요청을 거부했다. 홀든은 처음에 "종교적 성격을 띤 촬영을 금지하는 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내셔널트러스트 측 대변인은 "종교 촬영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 변화에 대해 보이스 포 저스티스 UK는 내셔널트러스트가 종교적 이유로 홀든을 차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 사건의 표현과 대응은 종교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최근 내셔널트러스트가 기독교 유산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과 맞물려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내셔널트러스트는 공공 프로그램과 내부 문화에서 기독교 유산을 주변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보이스 포 저스티스 UK는 이번 결정이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힐러리 맥그레이디(Hilary McGrady) 내셔널트러스트 사무총장에게 해명과 사과,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셔널트러스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유산을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예배가 지속되는 역사지구 내 예배당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를 관리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종교 촬영을 금지하는 공식 정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 美 텍사스 기독교대학, 젠더 관련 학과 폐지 결정

미국 텍사스 기독교대학교(Texas Christian University-TCU)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인종-젠더 관련 학과 두 곳을 오는 학년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트워스에 위치한 TCU는 성명에서 여성-젠더 학과(Women & Gender Studies)와 비교 인종-민족학과(Comparative Race and Ethnic Studies)를 2026년 6월부터 공식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TCU 대변인은 학교 매체 'TCU 360'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극히 낮은 등록 인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따르면 2025년 가을 기준 비교 인종-민족학과 전공자는 9명, 여성-젠더학과 전공자는 2명에 불과했다. 두 학과가 폐지되면 해당 교수진과 전공-부전공 학생 관련 강의는 모두 영문학과로 이관된다. TCU 측은 학생들이 앞으로도 다른 학과의 틀 안에서 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젠더학과는 그동안 사회적 성(gender)·생물학적 성(sex)·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개념,

교차성(intersectionality), 특권과 억압 등 이론을 가르쳐 왔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프로젝트 기획실행 교육도 포함해왔다.

비교 인종-민족학과는 고등교육의 '탈식민화'를 목표로 하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억압 체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교육"을 표방해왔다.

한편, 이번 결정은 TCU 내 다양성-평형-포용(DEI)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9월에는 총장 고문이자 최고포용책임자였던 조나선 벤자만-알바라도 박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대학은 관련 기능 일부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4월, TCU는 다양성-포용 관련 전담 부서인 '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을 폐지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콘텐츠를 삭제했다. 버넷 의학과대학과 간호보건대학 역시 자체 DEI 페이지를 제거했다.

텍사스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정부 시기, 그렉 애벗 주지사가 모든 주 정부 기관에서 DEI 사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



©Wikimedia Commons/Amymay52/Public Domain

표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DEI 관련 행정명령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TCU는 전(前) 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이 참석 예정이었던 터닝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 행사 취소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TCU는 폭스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요청이 너무 늦게 왔고, 해당 장소는 이미 예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 5곳은?”

미국의 '죄악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는 11월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음주-도박-성인 오락시설 수-폭력범죄 등 37개 항목을 분석한 '미국에서 가장 죄 많은 도시(Most Sinful Cities in America)' 보고서를 공개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예상대로 1위를 지켰지만, 보고서는 "악덕과 일탈 행동을 조장하는 도시는 미국 전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월렛허브 애널리스트 팀 루프는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이 '죄악적'이라고 보는 활동들이 있다"며 "폭력 범죄나 신분 도용 같은 항목은 명백히 해악을 끼치고, 음주나 도박은 통제되지 않으면 큰 파괴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죄악 도시란 이러한 활동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미 인구조사국, 노동통계국, FBI, IRS, 도로교통안전국(NHTSA), 정신건강서비스국, 문제도박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10월 20일 기준으로 수잡분석됐다.

월렛허브는 분노-증오, 질투, 탐욕, 색욕, 허영, 나태 등 6개 범주도 도시별 '죄 지수'를 평가했다. 상위 5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1위 라스베이거스(네바다)**  
'죄악의 도시(Sin City)'라는 별명답게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카지노 수가 전국 2위에 달하며, 성인 오락시설도 전국 최다 수준이다.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은 포르노-스트립 클럽 등 성인 콘텐츠 관련 검색량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신분 도용 및 사기 신고 건수도 전국 5위. 24시간 엔터테인먼트 환경 탓에 '나태' 항목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2위 휴스턴(텍사스)**  
성인 오락업소 수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으며, 불륜-포르노-스트립 클럽 관련 검색량에서도 상위에 올랐다.



©pixabay

2023년 1월-2025년 6월 기준 대량 총격 사건 발생 건수는 전국 5위였으며, 폭력범죄율은 21위, 대중폭행 발생률은 28위로 나타났다.

**3위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과 달리 전체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중범죄 발생률은 전국 14위, 대량 총격 사건은 8위를 차지했다. 봉사 참여율과 기부율도 매우 낮아, 전국 5번째로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다.

**4위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  
'형제애의 도시'라는 명성과는 달리 전미 4위의 죄악 도시로 평가됐다. 월렛허브의 '분노-증오' 지수에서 2위, '질투' 지수에서 7위를 기록했다. 탐욕과 나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색욕과 허영 항목에서는 각각 12위와 18위로 나타났다.

**5위 애틀랜타(조지아)**  
미 남부의 대표 도시 애틀랜타는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질투·색욕 부문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으며, 허영 부문에서도 전국 9위였다.

반면 '과도한-악덕' 항목에서는 117위, '탐욕' 항목에서는 168위로 낮았고, 나태 항목에서는 182개 도시 중 92위였다.

월렛허브의 이번 연구는 도시별 사회적 문제와 범죄, 소비문화, 온라인 행동 패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미국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죄악 도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된다. 이미경 기자

## 러, 11월 우크라이나 1년만 최대면적 영토 점령

AFP, ISW 데이터 분석해 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난 11월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1일(현지 시간) AFP통신은 미국 전쟁연구소(ISW)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701㎢로 1년 만 최대 규모였다.

러시아의 집략 초기를 제외한다면 지난해 11

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또한 AFP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9.3%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통제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7%인 크림반도, 동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통제 아래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점령 지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장악은 미국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는 요구를 거듭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들어 약 54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00㎢ 늘어난 규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11월에만 272㎢를 장악했다. 김예진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KSW 한국동서발전**





#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용국 기자



# 교육 사각지대에 희망을… 월드쉐어, 미얀마 ‘주민 참여형 공부방’ 시작



월드쉐어가 마련한 흐마우비 타운십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월드쉐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가 미얀마 양곤 외곽 지역 아동들을 위한 ‘흐마우비 타운십 아동공부방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흐마우비 타운십은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양곤 외곽의 대표적인 취약 지역으로, 특히 이번 공부방이 조성된 마을은 수상가옥이 많아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곳에는 유치원 한 곳 외에는 별도의 학습 공간이 없어 아이들이 학습 결손과 방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번 사업은 지진 피해와 빈곤으로 교

육 접근성이 떨어진 미얀마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 추진됐다. 월드쉐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 격차를 직접 확인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실로 마련된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1월 둘째 주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은 마을 주민들

이 공동 관리하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빈곤가정 아동 34명이 등록을 마쳤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연령별로 구성된 반에서 기초 학습, 독서 지도, 정서 발달 교육, 위생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배움에 참여하도록 간식 제공, 특별활동,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지 협력자와 교사,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업, 간식, 환경정비 등 운영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아이들의 배움터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구축했다.

월드쉐어 국제사업부 이병희 책임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아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는 첫 시도다.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이들 학습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기아대책, ‘모두의 그라운드-슈팅포호프’ 성료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국내 아동들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희망의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최근 충남 천안시 소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개최된 2025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축구대회인 ‘모두의 그라운드-슈팅포호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차별,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구를 매개로 이주배경 아동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국내 아동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사회적 관계성 및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본도시락이 참가자들을 위해 300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했으며, 스포츠 용품 전문 브랜드인 ㈜나스소는 ▲유니폼 ▲축구공 ▲조끼 ▲신발 등 다양한 축구용품품을 후원했다. 이 밖에도 롯데마트, 롯데슈퍼가 선수단 간식을 지원했고, 대

전천안후원이사회 역시 후원을 통해 뜻 깊은 행사에 힘을 보탰다.

대회에는 지속적인 훈련 여부를 비롯해 아동들의 참여 의지, 안전과 경기력 균형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선발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팀 6곳과 국내 아동으로 구성된 팀 3곳 등 9개 팀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주배경 아동 팀과 한국 아동 팀의 대전을 통해 상호 교류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에 둔 통합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했다. 선수들 역시 경쟁이나 승부가 아닌, 축구를 통해 교감

과 화합의 의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창남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미한 시간이었다”며 “출신과 배경을 넘어 모든 아이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행했던 그간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도 아이 한 명, 가정 하나, 지역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이 개최한 ‘모두의그라운드-슈팅포호프’에 참여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0월 국내 이주배경 아동이 교육·돌봄·진로 영역에서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심층 분석한 이슈리포트 ‘이주배경아동이 마주한 세 가지 장벽, Bridge the Gap, Be

the Bridge’를 발간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주배경 아동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 ‘제11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성황리에 폐막

한 달간의 대장정 마무리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11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가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를 주제로 시작돼, 아동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인식 확산에 기여해왔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과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에 맞춰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로 담아내며 사회적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오고 있다. 약 500명으로 출발한 영화제는 10년간 약 70배 성장하며 2024년 기준 누적 관객 약 31만 명을 기록했다. 아동과 어른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아동권리의 장’으로, 매년 새로운 큐레이션을 통해 ‘아동권리 영화’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발전시키고 있다.

올해 영화제는 온·오프라인 상영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 ‘씨네아동권리놀이터’, 교육 프로그램 ‘씨네아동권리학교’ 등을 포함해 총 5만 5천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였다. 영화제 수익 전액은 국내외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단편영화 수상작 6편과



‘제11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단편영화 시상식이 종료된 후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단편영화 어린이관 3편이 무료 상영되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전쟁과 아동 특별전’ 3편, ‘아동권리라는 장르’ 2편, ‘디즈니 특별 초청전’ 1편, 단편영화 수상작 6편이 상영되었다. 11월 12·8·9일 총 나흘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영화제에서는 상영과 함께 GV(관객과 의 대화)가 이어지며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전쟁과 아동 특별전’은 분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아동의 꿈과 희망을 조명했으며, ‘아동권리라는 장르’에서는 아동을 작품의 중심에 두는 다름없는 형태의 영화 세계를 통해 아동권리 영화의 장르적 가능성을 탐색했다. ‘디즈니 특별 초청전’에서는 디즈니 작품을 상영하고 ‘소속감’과 ‘외로움’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으며, ‘단편 아동권리 수상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편의 단편영화를 통해 오늘날 아동이 직면한 다양한 현실을 깊이 있게 다뤘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문소리와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박경림, 정재승, 남궁인을 비롯한 배우 김선영, 번역가 황석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영작과 연계한 GV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관객들과 공유했다.

11월 한 달간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관객 투표에서는 신하연 감독의 <졸업사진>이 관객상을 수상했다. <졸업사진>은 칸국제광고제에서 주목받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적 자막’을 국내 영화제 최초로 적용해 장애인에게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최승연 기자

## ‘i-dle(아이들)’ 민니, 월드비전에 태국 홍수 피해 아동 위해 기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그룹 ‘i-dle(아이들)’ 멤버 민니가 태국 남부 홍수 피해 지역의 아동과 취약 가정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태국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남부 9개 주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홍수로 98개 군, 643개 지역, 4,688개 마을, 약 22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가정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아동·취약계층의 일상과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기부와 관련해 민니는 “고향인 태국이 갑작스러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며 “특히 아이들과 취약한 가정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태국월드비전은 현재 긴급구호 재난 대응 2단계계를 선포하고, 2026년 2월까지 ▲생수·의약품·건조식품·침구류·모기장 등 긴급구호품 지원, ▲침수된 학교 및 지역 사회 시설 복구, ▲아동보호 강화 및 교육·보건 기능 회복, ▲농업물자 지원 등 생계회복, ▲재난 대비·위험 감소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니의 기부금은 전액 태국월드비전 긴급구호 사업에 사용되며,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정에 필수 생필품 지원, 임시거주 환경 개선, 초기 복구



그룹 ‘i-dle(아이들)’ 멤버 민니가 태국 홍수 피해 아동과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월드비전

를 위한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조명환 회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민니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는 태국 홍수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의 생존과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월드비전으로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 교자연 “한국 공직선거법, 교회 표현 자유 과도 제한… 개정 필요”

## 손현보 목사 장역 1년 구형 관련 2차 성명 발표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가 최근 부산 세계교회교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및 징역 1년 구형 사건에 대한 2차 성명을 발표했다. 교자연은 “한국 교회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본 단체는 한국 공직선거법의 종교행위 제한 구조를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501(c)(3) 제도,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교백의 관점에서 면밀히 비교·평가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현재 법제는 비례성과 명확성에서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한국 선거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교회 입막음 의도는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국회가 제정·개정해온 일반법으로, 공식 목적은 ‘후보자 간 기회의 실질적 평등 보장’, ‘과열·불공정 경쟁 방지(중앙선관위

자료)이다. 그러나 예배기도회 등 종교행위 공간에서의 발언 자체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구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종교 단체의 공적 의사표현이 강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헌법재판소는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금지’ 조항에 대해 9:0 합헌 결정을 내렸고(2024헌Ba450), 2025년 10월에도 동일한 제한을 재확인하였다”며 “입법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자유 보장’이라 하면서도, 교회의 정상적 공론 기능이 위축되는 실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둘째로 미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어떻게 취급되는가? 미국 교회는 대부분 연방 세법상 501(c)(3)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으며,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 1954)의 규율을 받는다”며 “해당 규정은 ‘어떠한 공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무제도가 원칙이며, 역사적으로도 실제 집행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교자연은 “2025년 7월, 미국 IRS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예배 중 설교에서의 정치적 언급을 ‘종교적 의사소통’으로 보아 정치 캠페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해석을 밝혔다(Reuters 보도)”고 했다.

이어 “이는 규정 자체(Johnson Amendment)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부에서의 설교형 지지반대는 세제 혜택 박탈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행정 해석이 변화한 것”이라며 “미국 복음주의 진영은 이를 ‘종교의 자유 회복’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구조적으로 큰 대비를 이룬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공직선거법 관점에서 “왜 개정 논의가 필요한가”라며 “먼저는 표현·종교의 자유의 과도 제한이다. 헌법 제21조(표현), 제20조(종교), 제19조(양심)는 모두 강력한 자유권이다. 현행 법률은 예배 중 정책·가치토론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형사처벌의 비례성 결여이다. 미국은 세무제재 수준인데, 한국은 구속·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셋째는 교회의 공적 책임 기능 약화이다. 성경은 사회적 정의·공의를 말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잠 31:8-9; 암 5:24).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적 현안에 대한 발언까지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넷째는 디지털·뉴미디어 환경과의 불일치”라며 “정책토론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복잡해졌는데, 현행법은 과거의 ‘집단 행사 금지’ 구조를 유지

하여 정상적 시민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자연은 “따라서 ▲후보 지지반대의 최소 규율 ▲정책·법안 의견 표현의 명시적 허용 ▲형벌 대신 과태료·행정제재 중심의 개편이 공론장 확대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정치신학이 말하는 국가·교회의 관계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거론했다.

◆성경  
\*행 5:29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 31:8-9 약자 보호·공적 의무의 발언 명령 \*암 5:24 정의·공의의 공적 실천 \*딤후 2:1-2 통치자를 위한 기도·사회 질서 \*렘 13:1-7 국가 권세 존중·남용에 대한 한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CF 20장 - 양심의 자유: 국가가 신앙 양심을 강제할 수 없음

WCF 23장 - 국가와 교회의 권한 구별  
WCF 31장 4항 - 교회는 영적 목적과 직접 관련된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음

◆칼뱅 ‘기독교강요’  
IV.20 시민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되 교회와 국가의 직무 분리 III.19-20 신앙과 공적 삶의 책임 강조

더불어 “개혁주의 전통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며, 공적 정의와 약자 보호를 위한 교회의 공적 발언을 정당한 사명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교자연은 “한국은 형사처벌 중심·포괄적 종교행위 규제, 미국은 세법 중심·설교형 지지 허용 방향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크다”며 “따라서 정책·법안 논쟁의 자유 보장, 형벌 대신 행정제재 중심의 합리화, 교회의 공익적 발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정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인권조례 빙자한 차별금지법 안 돼… 제주 인권헌장 즉각 폐기해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언론회는 해당 인권헌장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모법(母法) 없이 자법(子法)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라며 “각 지자체가 차별금지 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인권헌장을 발표하려는 데 대해 “왜 자꾸 핑지풍파를 일으키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도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여론조사에서 도민 66.9%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48.3%, 찬성이 32.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으로 지적한 부분은 헌장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가두행진 ©거룩한방파제

이다. 언론회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한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항을 차별금지조목 목을 경우 가정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도덕·표현·양심·종교의 자유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제27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조항에 대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동성애와

‘젠더’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성소수자·젠더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만들려는 인권헌장은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개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히려 천부적 인권을 억압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6만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단체는 같은 날 제주도청 앞에서 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 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전하며 “‘제주판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지자체장들이 이런 조례나 헌장을 만들며 치적을 쌓는 듯하지 만 이는 지역민을 불편하게 하고 평가르기를 조작하는 일”이라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문제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선동적 치적 활동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살롬나비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1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림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새롭게 바라보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롬나비는 대림절이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매일의 삶에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힘쓰는 시기”라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대림절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며, ‘대림(Advent)’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대림절이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성탄으로 성취된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며, 성도들이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림절을 초림과 재림을 함께 묵상하는 종말론적 소망의 절기로 규정했다. 살롬나비는 오늘의 세계가 전쟁과 재난, 지구온난화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부유함과 향락을 누리며 자기만족에 도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핵심은 확고한 믿음이라고 강조하며, 예수의 재림에도 초림 때처럼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평은 “뒤돌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며, 깨어 있음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 대림 준비 완료의 선포”라고 설명했다.

살롬나비는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림이 마지막 부활과 최종 심판을 동반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모든 인간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갈림길 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언급하며, 대림절이 이러한 말씀을 되새기는 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림절 신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살롬나비는 재림은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기다림”이라며, 특히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림의 소망을 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태복음의 열 처녀 비유를 언급하며 성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에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외쳤으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대답을 들은 점을 상기시키며, 대림절은 “한때의 일시적 열정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까지 예비하는 신앙”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살롬나비는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교회가 돌보고 돕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살롬나비는 한국교회가 대림절을 단순한 연례 행사로 치르지 말고, “예수의 뜻을 읽고 증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수의 첫 번째 강림이 구속을 보장한 것처럼, 두 번째 강림은 교회의 ‘복된 소망’이라며 신앙의 기본적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전문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영혼의 닳을 깊이 내리는 지혜



강준민 목사  
세성명비전교회

성숙한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깊은 진리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 12:25).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잃음 속에 얻음이, 낮아짐 속에 높아짐이, 죽음 속에 생명이 피어나는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범사(凡事)’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이는 좋은 일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성숙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synergy(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시너지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합하여 가장 선한 결과, 최상의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참담하고, 잔혹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은 스무 개에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고난의 수레는 총리가 타는 버금 수레로 바뀌었고, 형제들이 찢어버린 채색옷은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요셉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은 서로 결합되어 그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조점을 맞출 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박

국 선지자는 자신의 비극적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솔직하게 나열합니다. 그의 형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족함과 가독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합 3:17). 그러나 그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 순간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는 기뻐합니다. 그는 놀라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스리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합 3:18-19).

인생의 문제는 조점의 문제, 곧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머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은 최상의 포도주를 차고 넘쳐도 공 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은 역전됩니다.

셋째, 고난이 변장 된 축복임을 깨달을 때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흑암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속에 보화를 숨겨두십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사 45:3상). 하나님은 종종 고난이란 검은 포장지 안에 놀라운 선물을 담아두십니다. 검은 포장지에만 시선을 두고 고난을 거부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할 때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고난 속에 담긴 보화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는 성숙한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깊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만큼 자랍니다. 감사는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장차 영광이 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사명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성숙한 감사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 자신을 개방하는 용기



이경애 원장  
에온심리상담교육원장

얼마 전 오랫동안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원래 상태로 두었던 지인이 자신의 프로필에 얼굴 사진을 올려놓았다. 온갖 SNS를 통해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진정한 속마음의 생각과 감정 경험은 더욱 숨기고 인접하지 않는 시대 아닌가? 이러한 때 자신의 최근 모습을 올린 지인의 행동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담긴 의미로 해석되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를 매우 기뻐하셨다. 창조는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다웠다. 단,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인 것은 하나였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다(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인간 창조 즉, 아담의 창조이었다면 그 완성은 하와의 창조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담은 그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수치심 없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본다(창세기 2장 23-25절). 그렇다.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지지 받으며 그 능력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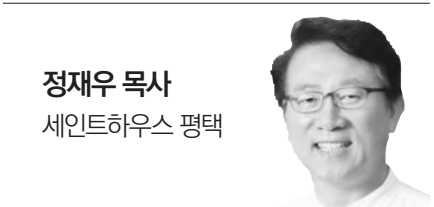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존재 또한 사람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 양육자인 엄마의 관계로부터 관계적 욕구의 완전한 충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숙명적인 존재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신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컷(D.W.Winnicott)이 주장한 것과 같이 엄마의 ‘충분히 좋은 양육’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이 주장한 것과 같이 원래 아이의 내적 환상(Phantasy-fantasy)가 아닌- 자체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엄마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 놓고 그 기대의 불충족을 원망하는 운명적 존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선한 이들이 더 많고, 나를 이해해 줄 그 누군가가

있음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불들과 살아야 하는 아름다운 기대가 아닐까 한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적 특성을 5가지로 추려왔다. 소위 ‘Big 5’라고 불리는 이 성격적 특징은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그리고 신경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물론 앞의 4가지 특성은 많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마지막 다섯 번째 특성은 과다할 경우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인은 이 개방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좋은 성격적 특성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다.

말이 많아지고, 진정한 대화라기보다 소리가 많아지는 시대, 진정한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스로 위축되고 은폐시키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개방시키는 용기를 다시 내어보도록 하자.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나를 지지하고 또 내가 지지해 줄, 진정한 내 모습을 개방하고 만나며 공유할 인간 천사들이 있음을 기대하며 말이다.

## 누리호가 쏘아올린 감동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편집

제4차 누리호 발사는 단순히 로켓 하나가 우주로 솟아오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우주항공 역사의 한 장면이자, 과학기술이 국민적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였다.

누리호의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팔이 필요 없는 눈물과 포옹이 터져 나왔다. 그 감격은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첫발을 내디딘 이 역사적 순간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부심으로 확장되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에 의미를 던진다. 먼저 국민 정서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오래된 피로감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고,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이 국가적 사기진작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작은 나라에서 세계 우주 강국들을 향해 꾸준히 발돋움하는 모습은 그 자체

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당당하게 만든다.

기업들 역시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발사 성공은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이는 수출 확대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연결된다. 우주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함께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성공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긴다. 우주항공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과학기술의 성취가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길을 열어주고, 국가는 그 잠재력이 자라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전남도가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확장하려는 노력도 그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흥이라는 지명에 실리는 역사적-정치적 무게 또한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누리호의 성공은 작은 나라들에게도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주개발이 특정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이 몸

소 보여준 셈이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다.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를 만들고 싶다. 과학기술은 서로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한편 이번 성취를 바라보며 다수의 국민이 “정지만 잘하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솔직한 여론을 내비쳤다. 과학자들의 땀과 헌신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시너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적 여망이 이런 큰 기쁨의 날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은 인재들의 헌신과 묵묵한 노력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누리호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주를 향한 한국의 여정은 이제 겨우 첫 장을 연 셈이다. 그러나 그 첫 장이 주는 감격은 오래갈 것이다.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본 이 감동과 자부심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우주항공과학자들의 뜨거운 감격이 다음 세대의 꿈이 되고, 다시 미래의 성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 저출생 ‘원아 절벽’… 전국 유치원 8000개도 위태롭다

교육부 2025 유치원 현황… 올해 8140개  
3년간 원아 수 7만 명 감소… 교원은 증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아 수가 급감하자 유치원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의 2025 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수는 8140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84개로 가장 많고 서울 740개, 경남 646개, 경북 632개, 전남 494개, 충남 482개, 전북 459개 순이다. 유치원 수는 2022년 8562개에서 3년 만에 422개가 줄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5113개에서 5071개로 42개 줄어든 반면 사립유치원은 3446개에서 3066개로 380개 감소했다. 국립유치원 수는 3개로 변

동일 없다. 같은 기간 학급수 역시 3만5799개에서 3만790개로 약 5000개 줄었다.

원아 수는 2022년 55만2812명에서 2025년 48만1563명으로 7만1243명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 수는 5만3696명에서 5만5262명으로 증가했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수는 3만2353명에서 2만9826명으로 2527명 줄었지만 공립유치원 교원 수는 2만1318명에서 2만5399명으로 4081명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원아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1만7048명이 줄었다. 이어 경남 7387명, 서울 7132명, 경북 6549명, 부산 5282명, 대구 4116명, 충남 3873명, 전북 3576명, 대전 3001명, 광주 2813명, 울산 2389명, 전남 2295명, 인천 1799명, 충북 1659명, 제주 910명, 강원 864명, 세종 576명 순이다.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0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2만6085개로 지난해 말 2만7387개와 비교하면 올해에만 1302개소가 문을 닫았다. 3년 전인 2022년 3만923개보다는 4838개가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한 이후 7년 연속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단 2024년에는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올라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는 2년 연속 반등해 0.79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단은 기자

# 맵고 짠 음식에 빠진 한국인 20·30 ‘젊은 위암’ 부른다

‘20~30대’ 위암 환자 113만 명… 4년 연속 늘어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카페인 음료 등 자극적인 음식이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세대 위암·십이지장암 환자 수는 2020년 109만명에서 2023년 113만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만성 위염은 방치하면 위 점막이 손상돼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젊은 세대일수록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위암 발생자는 2만9487명으로 전체 암중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주로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져 위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염장 식품이나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니트로사민 성분이나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이러한 변화를 심화시켜 위 점막 손상을 가속화하고 위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있어도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처럼 흔한 소화기 질환과 구별이 쉽지 않다. 명치 통증,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검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가볍게 넘기다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기 위암은 증상이 아닌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라면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박수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을 때 받는 위내시경 검진이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암의 확진은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

를 통해 이뤄진다. 내시경으로 위 점막을 직접 관찰하며 의심 부위를 조직 검사로 확인하고, 병리 결과에 따라 암의 종류와 병기(진행 정도)를 판정한다. 이후 CT(컴퓨터단층촬영), 복부 초음파, 펩트-시티(PET-CT) 등 영상검사를 통해 암의 범위와 림프절 침범 여부를 평가한다.

조기 위암은 병변의 크기가 매우 작고 점막 표면의 미세한 변화만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숙련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위암으로 확진되면 환자의 병기와 상태에 따라 내시경 절제술, 수술, 항암 치료 등이 시행된다.

위암 치료의 핵심은 병기와 침윤 깊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암이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이라면 위 전체를 절제하지 않고도 내시경 절제술(ESD)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내시경 절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암이 있는 부위를 정밀하게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위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식사와 일상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이 적다. 적절한 기준에 맞게 시행된 내시경 절제술의 5년 생존율은 90~95% 이상으로, 위 절제 수술과 거의 동등한 치료 성적을 보인다. 다만 암의 크기, 깊이, 위치, 조직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위암 병변을 제거했다고 해도, 치료 후 정기적인 관리가 진정한 완치의 핵심이다.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부위의 재발 여부는 물론, 위의 다른 부위에 새로 위암이 생기지 않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짜고 매운 음식, 절임류, 훈제육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기본이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재발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박수비 교수는 “치료 후 첫 1~2년은 6개월 간격으로, 이후에는 1년 간격으로 내시경과 CT 검사를 시행해 장기 추적 관찰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며 “위 점막의 상태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장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 여성 구하러 맨홀 뛰어들고, 산불 속 어르신 끌어안고 대피… 10명 ‘의인상’

소방청, 시민 10명에  
‘2025년 119 의인상’ 수여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린 학생들을 구조하고, 경북 산불 발생 당시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해 대피시키는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시민들이 ‘119 의인상’을 받게 됐다.

소방청은 오늘(3일) 서울 중구 한국포

레스센터에서 시민 10명에게 ‘2025년 119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진강섭(42)씨는 지난 6월 16일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현장에서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익수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강에 뛰어들어 2명을 구조했다.

임지훈(45)씨는 지난 6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폭우로 길 한복판의 맨홀 뚜껑이 열려 지나가던 여성이 추락하자 맨홀 속으로 뛰어 들어가 여성을 구

조했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장복수(48)씨는 지난 8월 1일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에 위치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모자가 깊은 물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곡에 뛰어들어 아들을 구조했다.

김근우(34)씨는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발생 당시 화제가 급속히 확산해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고립되자 어르신들을 직접 부축하고 끌어안으며 2시간

동안 2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밖에 유준희(49), 박진주(40), 황우진(31), 김진석(58), 박현경(54), 김기정(40)씨도 화재, 수난, 붕괴, 집중호우, 심정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적극 구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의 순간, 시민의 용기는 곧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의로운 행동을 사회가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방청도 포상과 홍보, 지원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단은 기자

## LH, 연말까지 수도권 청년·신혼 대상 임대주택 3000호 공급

매입 임대 1917호,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한다.

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우선 이달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 등 총 3009호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 제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호가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기숙사형 102호 포함),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임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도 추진된다.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 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총 1092호로 ▲양주화전 A-25 영구임대주택 472호 ▲이천 장호원 통합 공공임대주택 620호이다.

양주화전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며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12월 15일~19일)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국도3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및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루리 기자

# 행복한 동행

##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물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sup>2</sup>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강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려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강산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북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 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회의 대표회장

**강사 약력**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한샘교회**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방향 및 성령의 역사**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께서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사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날 새를 함께 하소서

## 기독교 교회사 (1)

**서론**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함께 출발된 기독교 역사는 약 6,000여 년간 전개되어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를 아우르고 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진행시켜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를 때로는 주관적 입장에서 때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수많은 기독교 역사 서적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평가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대와 장소, 민족적 문화와 전통, 학문적 변화에 따라 기독교의 진리가 수없이 오류되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학 원리에 의하여 바르게 정리, 평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역사학자 개인들의 주관적 신학이나 개인적 신앙 및 역사관에 의하여, 또는 당시의 신학 사상이나 시대적 역사관 등등에 의하여

진리가 무시되고 오류와 비진리가 진리와 정통으로 둔갑하여 정리되고 평가된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한 기독교 역사를 정립한다.**  
지금까지의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학자나 일반 역사학자에 구별 없이 모두 다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적 차원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워지고 존재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세워지고 존재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이 인간에게는 최고 최대의 문제이겠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설립하신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이라는 것과,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선포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기독교의 본질이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언어도단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본질이 인류 구원이라면, 그리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며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죄제를 죽음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의(意 또는 義)를 이루기 위함이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죽음의 궁극적 목적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 성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인류의 구속 역사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의 지엽적인 하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본질로 하는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 역사 속의 일반 역사를 정리한다.**  
지금까지의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학자나 일반 역사학자에 구별 없이 모두 다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 역사 속의 기독교 역사를 논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역사에 슬그머니 참여한 하나의 종교적 차원에서의



기독교 역사를 다룬 것입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은 인류 사회가 상당히 오랜 역사적 진행을 거듭한 어느 시점에 기독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은 기독교가 로마 점령하의 유대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으로 인식합니다. 때문에 저들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개념은 언제나 당연히 히 인류 역사 속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들은 기독교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출발되는 창세 전부터의 기독교 역사를 전혀 배제한 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교회까지도 거부한 채 사도들로부터 시작되는 초대 교회를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들은 기독교 역사는 물론이요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존하는 모든 역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출발되고 전개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전개하시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도구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모든 역사의 출발이고 중심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일반 역사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다양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를 변증하고 보좌하는 역사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를 어떻게 포용하시고 아우르시는가 하는 것을 도처에서 증거함으로써 일반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변증하고 보좌하는 섭리적 도구임을 밝혀줍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후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메대파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로마 제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는 하나님의 섭리 등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역사를 정리할 것이며, 일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변증하고 보좌하는 차원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서 완전무결한 최고, 최상의 종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거부하고 기독교의 명칭하에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일반 종교와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역사보다는 수많은 오류와 비진리에 빠져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이탈되어진 역사를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수없이 간과하였

습니다.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다만 역사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역사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과 함께 그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까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의 진행 과정에 존재했던 오류와 비진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역사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학자는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면 진리가 비진리로, 비진리가 진리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학자들의 주관적인 신학과 신앙 및 역사관에 의하여, 그리고 시대와 문화적 전통에 의한 객관적 역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역사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평가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독교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경이 있으며 신학이 있고 그 신학에서 비롯되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 신학이나 역사관 및 개인적 신앙이나 시대적인 문화와 전통 등등에 의한 객관적 차원에서 기독교 역사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을 토대로 형성된 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Matthew 21:22 NIV  
If you believe,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 ask for : (~을 달라고) 요청하다  
구하다  
- in prayer : 기도 중에

- if 절에 ‘현재형’이 쓰이면 주절에는 대부분 ‘will’이 옵니다.  
- will : 예측(prediction)의 조동사  
- whatever :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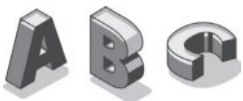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기도 중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Hebrews 11:1 NIV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세한 뜻은 Oxford 영어사전을 참고하였음

- confidence: (어떤 것이 선택된 것이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  
- assurance: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  
- what we do not see: (우리에 게) 보이지 않는 것  
☞ confidence와 assurance의 자

히브리어 11장 1절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 것이 선택된 것이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이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 (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정'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g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성경의 궁금증 성서화로 풀기(9)

제목을 보고 왜 이런 험한 글을 쓰냐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지식인이요 지도층인 서기관(율법학자)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말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外飾)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개역개정 마태23:33)

성서화를 접하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예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 또는 <위선자에 대한 논박> 등 제목이 붙은 그림을 만나게 된다.

이런 그림은 예수를 잡아 처형하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박한 마태복음 제23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다.

성경에서 예수의 권면은 일반적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바유나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책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불같은 노여움으로 책망하고 직선적인 격한 표현으로 경책하기도 한다.

마태복음 제23장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를 연속하여 일곱 번이나 쓰고 있다. 쉽게 번역하면 ‘이 버락 맞을 자들이’ 하는 것이 더욱 쉬운 표현인 것 같다.

위의 두 그림을 보면 제임스 티소 (James Tissot 1836-1902)는 프랑스인으로 영국 신교전주의 작가로서 후반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다. 뉴욕의 유대인박물관에서 여러 번 구약성서화전시회를 개최한 화가이다. 복음서를 주제로 서기관들과 열성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을 책망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것은 특이



제임스 티소(James Tissot) |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는 예수, Jesus rebuking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law> | 1886~96년경, 수채화

한 일이다. 두 번째 그림은 스페인 예수회 신부인 제롬 나달의 복음서 이야기에 실린 목판화인데 유대지도자들을 논박하는 예수의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는 왜 이렇게 그들에게 극한적인 용어로 심판을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행태가 상식을 넘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는 다음과 같이 쉬운 말로 지적하고 있다.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경문(經文) 띠를 넓게 하며 옷 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위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 하나니라 (개역개정 마23:5-6)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렵다. 그러다가 성서화를 접하면 궁금증이 풀린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적어서 검은 색 직은

가죽 상자에 넣고 그 상자에 띠를 달아 이마와 왼팔에 묶고 다녔다. 이 작은 상자가 경문(經文)이다. 히브리어로는 테필린(tefillin)이다. 이는 성경말씀대로 ‘지킨다’는 뜻이다.

미국성경(NIV)에서는 이를 피락터리(phylactery)라고 하는데 ‘성물함’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자가 뉴욕에 근무 할 적에 보면 오늘 날에도 정통 유대교인(Orthodox Judaism) 들은 아침 기도 때에 경문을 착용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지에서도 경문을 묶고 있는 유대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성물함 속에 써 넣은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규범인 두 가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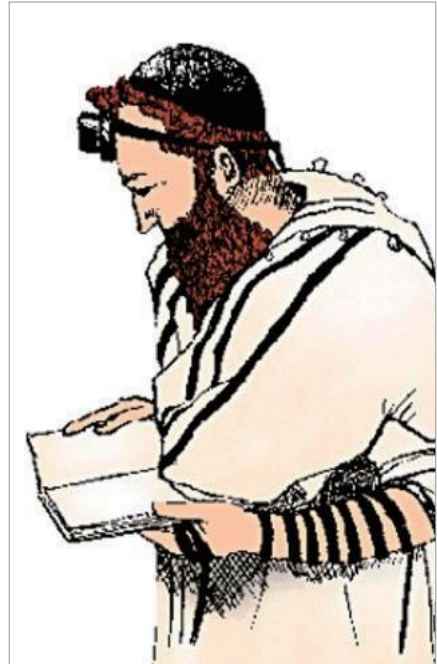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기록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구절이다(출애굽기 13:1-10, 11-16).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다.



작가미상 | <위선자들에 논박하는 예수, Against the Hypocrites> | 제롬나달의 복음서이야기 그림(Jerome Nadal's Evangelicae Historiae Imagines) | 1593년 목판화,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영성연구소, 캘리포니아

둘째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규범인 ‘셰마(shema)’이다. 셰마는 히브리어로서 ‘들으라’는 뜻이다(신명기6:4-9, 11:13-2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4-5)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중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6:8-9) 그런데 예수는 왜 경문을 달고 다니는 것을 위선의 극치라고 책망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경문에 쓴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마치 자기는 구절대



이마와 왼팔에 경문띠로 묶은 테필린을 착용한 유대인 이미지.

로 산다는 듯이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 경문상자를 크게 하고 묶는 띠도 넓게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외식(外飾)하는’이란 말은 본질은 망각하고 겉모양만 번드르르게 꾸미는 교만함을 말한다. 예수는 외식행위를 다른 말로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으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썩은 송장뿐이다.’

경문의 띠를 넓히는 외식과 교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시대 우리는 교회와 성경은 뒷전으로 하고 화려한 직함과 감투를 자랑하지는 않는지? 현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인지 자문해 본다.

건강상식

커피, 과연 독일까 약일까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릴 때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과 향이 늦가을에 젖어든 감성을 자극하기에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기도 하는데, 과연 커피는 우리 몸에 독일까, 약일까. ‘커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매일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높아진다’ ‘하루 한 잔의 커피는 건강에 좋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 등등 커피에 대한 논쟁은 오랜 시간 끊이지 않고 있어 물 한 잔도 건강을 따져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요소로 작용한다.

커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카페인, 탄닌, 식이섬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카페인인 커피를 대표하는 성분으로 일시적으로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 졸음을 몰아내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 몸이 나른하고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카페인인 소변량을 늘려 이뇨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반면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다소 빠르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 불면과 심장 두근거림, 흥분상태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평소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경

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잠들기 전에 커피를 마실 경우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해 다음날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저녁에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카페인인 갈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밀도를 떨어뜨려 골다공증 발생률을 높여 주는데, 커피를 마실 때는 우유를 곁들여 갈슘을 보충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커피는 카페인 외에 녹차보다 7배, 홍차보다 9배가 많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각종 질

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인체 내 활성산소가 제거되면 기혈순환이 촉진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활성산소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커피가 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당뇨병에 도움이 되며, 간암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 커피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받아들

량의 섭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장 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는 등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잔을 마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가 말이다. 따라서 커피가 우리 건강에 좋다, 나쁘다를 단정짓기 어려우며, 하루 섭취량을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특이 체질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 1~2잔 정도는 건강에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인스턴트나 다른 첨가물이 함유된 커피는 삼가고 연한 블랙커피를 추천한다. 김소형 한의학박사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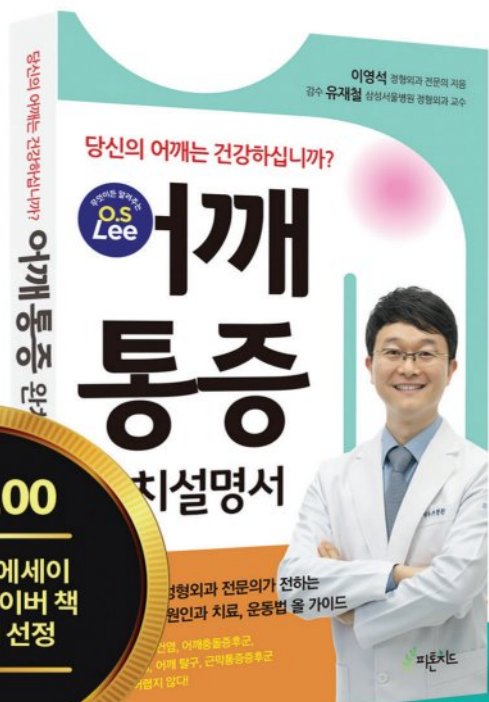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은혜의샘물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마태복음 25장 31-46절]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도 겸소하게 치러주십시오. 긴 상사를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학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죽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누렸던 퀴오바디스(Quo vadis)란 책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주인공 바나키우스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헬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미술품을 남겼네. 그리고 로마는 세력과 법률을 우리에게 주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인내와 사랑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 우역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 이후 사랑의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갔습니다.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영웅 호걸들은 그들이 세운 나라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랑을 전했던 예수는 비록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가 전한 사랑의 복음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집 나간 지 벌써 4일째나 되었는데. 눈이 쌓이면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텐데. 어쨌든, 내 잠시 나갔어요.” 페스탈로치는 아내인 안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다 해진 옷을 차려 입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남자아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이로슬라고 합니다.”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어도 모두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다. “아니, 또 도망쳤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잠시라도 눈을 떼면 무엇이든 훔쳐가니 안심할 수가 없소. 빨리 붙잡아요.”

페스타로치는 노이호프라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자신의 집을 고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1772년 페스타로치가 빈민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닭 없이 눈총을 주고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때때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로스와 같이 집에서 도망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스타로치와 그의 아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보라치는 이날도 페스탈로치는 도망친 아이로스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아이로스는 어디로 갔을까? 무사해야 할 텐데. 나쁜 짓일랑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아이로스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페스탈로치는 기다하며 었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끙끙 앓어불다시피 한 아이로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 눕히고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로스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로스는 훌쩍이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로스, 아무 말 마라. 관찰아, 추웠지?” 페스탈로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다.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다.

이것은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처음으로 빈민학교를 세웠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827년 81세로 일생을 마친 페스탈로치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노이호프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시탄스탄

초에서는 고아의 아버지였으며, 브르크  
도르프에서는 국민학교의 설립자였으며,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으나 자신을 위  
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위대한 교  
육자였다. 그의 이름에 거룩한 은혜가 있  
을지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민화 가운데 [사랑이 있  
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반지하  
에 살고 있는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이  
름을 가진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신용 있고  
신앙심이 깊은 구두수선공입니다. 마  
르틴은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매우 불운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직 남의  
밑에 있을 때에 부인은 죽었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도 병들어 죽고 말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마르틴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  
는 것인지 را 알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기쁨을 찾고 참 만족을 얻었습니  
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 신앙과 가정

# 광야의 찬송

우리 손에 욕심을 가득 쥐고서는 주  
님을 깊이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 외엔것  
을 비워내면서 그분만을 사모한다면 주  
님은 임재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되 진 사람의 성품이 인생의 쓰러짐  
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  
욕을 모두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  
때로 하나님은 광야에 홀로 있는 듯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  
다.

광야의 삶은 외롭고 쓸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광야에서 별은 더 반짝이듯이 주님의 빛은 더 강하게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오. 아들이 짙고 밤이 깊을수록 반드시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자원하여 가셨습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외로이 서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었습니다. 광야에 내려가더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만 기도하며 내려가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며 내려가십시오.

관악의 일상은 고독합니다. 온통  
플플레 소리와 짐승 우는 소리뿐. 위로  
와 격려의 말은 없는 침묵만이 흐를 뿐  
입니다. 숨을 낚도, 쉴 낚도, 피할 낚도,  
편히 누울 낚도 없을 것입니다. 쓸 낚도  
먹을 낚도 그대 녀는 없는 아늑한 것이  
입니다. 누구 하나, 네 마를 알아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통 관심은 하

늘로 향하게 되고 오로지 주님만이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는 진정한 경배와 찬송이 더 깊이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은 곳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주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내려가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마십시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레마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령을 깊이 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혼에 새겨집니다. 광야에서 받은 말씀은 기사와 표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드리는 찬송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합니다. 사단의 요새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케 합니다. 그럴 때 열기, 고집,

교만, 탐욕, 성질, 모난 성품, 위선, 가증,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새로 조성됩니다. 그러니 광야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사단의 시험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광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주를 잊을 때마다 오 날의 길이 광야 생활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의 삶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은혜로 사는 광야는 신나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찬송을 터트리십시오.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를 제

## 교회오빠

## 선택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주의를 따라갑니다. 종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쫓으라'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오라', '나를 믿으라' 수많은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책임이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말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 계로 오라 하는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사상이나 우상을 따라가면 망해도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점점 형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 삶 가운데 승리한 자가 찬양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느헤미야 1:1-2)



김남수 교수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감사하라, 즉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는 속죄제, 속건제, 반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을 죽여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헌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피의 제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사는 삶 전체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라는 낱말에는 영속성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밤, 또는 새벽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흘리심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살아 있는 몸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즐겨 쓰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쁨 때, 슬픔 때, 무엇에든지, 종일토록, 날마다, 일생 동안, 영원히”라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찬양하고 집에서는 침묵하고, 교회에서는 사랑하고, 밖에서는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와 세상이 나누어진 이분법적인 삶이 되어선 안됩니다. 주일날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중요합니다. 일요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중요하지만 흠여질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 승리하는 자가 흠여질 때에도 승리할 수 있으며, 흠여졌을 때 승리한 자가 모였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를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땅에가 있고, 물질이 풍요롭고, 육체가 건강할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적에게 쫓길 때, 궁핍할 때, 심지어

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드린 찬양의 조건은 풍족한 환경,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그와 함께 하신다는 삶 가운데 있었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1세기 찬송가 304장은 미국의 레만 Frederick, M. Lehman 목사님이 노랫말과 곡을 만들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공장에서 목수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읊조리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산 제사는 변화된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휴스태드 교수는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 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 즉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무엇인가 변해야 합니다.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해야 합니다. 묶은 닭으로 변해선 안 됩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고 찬송하며 다 접하던 첫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해가 갈수록 신앙생활이 변절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처음 가졌던 꿈이 더욱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대원, 집사 또는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안주하는 위험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주제를 장소, 시간, 그리고 환경의 문제로 좁혀 나갈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예배의 본질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불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리는 음악보다도 보이지 않는 당신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심령의 노래는 또 다른 심령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 노래가 바로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산 제사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음악으로 노래했다고 감명을 받거나, 잘 부르지 못했다고 의기소침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렸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최선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번의 완전함이 있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완전함에 등을 돌린 것이고, 또 한 번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우리들이 완전한 욕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정도로 미워한 것입니다.

최선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서로 다른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최선은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렵돈이 계산이 밝은 인간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최선은 열을

할 수 있는 자가 열을 다하는 것이며, 셋을 할 수 있는 자가 셋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을 할 수 있는 자가 아홉을 하면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간혹 불평을 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재능, 시간, 환경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텐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없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 가운데 승리한 자가 찬양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1. 삶 전체를 계속적으로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2. 변화된 모습으로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3. 최선을 다해 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 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 시편 33:3 - 노래하며 연주하라!



김철웅 목사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 33:3)

시편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사역이 어떤 방향과 모습이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1) “노래하여” 두 번째는 2) “연주할지어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인 “노래하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리듬 박자 화음으로 조화된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

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는 구분되는데, 범위를 따진다면 찬양이 노래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쉽게 말해 찬양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는 찬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린 노래를 잘 못하지만, 찬양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지양(止揚)하고 “우리는 노래함으로써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지향(指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인 “연주할지어다”입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연주 자체에 무슨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논쟁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사 내용을 알고 있는 멜로디를 연주하거나 또는 노래와 함께 이루

어지는 반주형태의 연주는 충분히 찬양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와 사람의 몸동작에 도움을 받아 생성되는 악기의 연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새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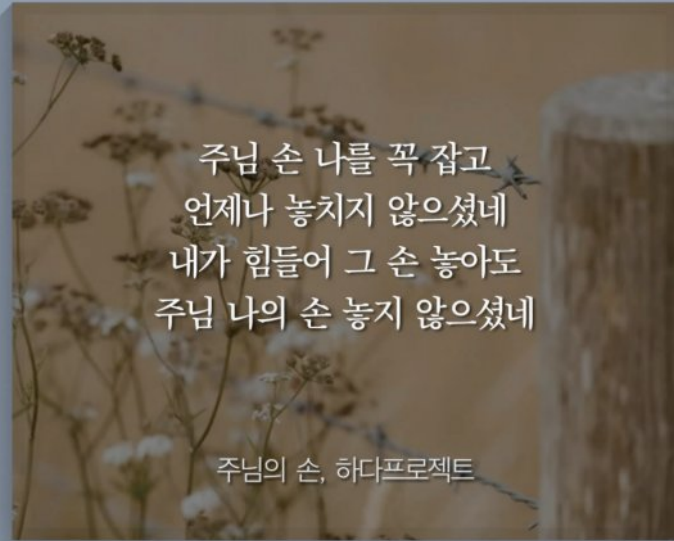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리더로 섬기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노래해야 하며 영원히 연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래와 연주로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새노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김철웅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Th.M)에서 공부했고, 미국 McCormick 신학교(M.A.T.S) 졸업 후, 미국 루터교단(LCMS) Concordia 신학교에서 음악신교학(Ph.D)을 전공했다. 현재는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며 서울장신대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외래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추적! 마틴 루터도 CCM 사역자였는가?』, 『추적! 찬양도 설교인가?』, 『추적! 음악신교는 가능한가?』 『추적! 유니아는 여자 사도인가?(신간)』 등이 있다.

## # 찬양한표



## 종이를 펼치면

##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액츠픽처스 신작 영화 ‘힘’, 학원 액션과 신앙 메시지 결합한 신세대 기독교 영화로 주목

학교폭력·청소년 성장·신앙 여정을  
한 편의 액션 드라마에 담아낸 도전적 시도

기독교 영화 제작사 액츠픽처스가 신작 영화 ‘힘(HIM: Who Gives Me Strength)’을 지난 11월 27일 정식 개봉하며 교계와 영화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영화 ‘매트’로 독창적인 시도를 보여줬던 액츠픽처스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학원 액션 장르와 기독교 세계관을 결합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영화 ‘힘’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등학생 ‘북’이 여러 조력자들을 만나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기독교 학원 액션물이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실적 소재 위에 복음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기존 기독교 영화의 한계를 넘어 대중성과 장르적 완성도를 함께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은 특히 시대극·다큐멘터리에 치우쳤던 기존 기독교 영화의 틀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로 편하게 몰입할 수 있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빠른 전개로 구성됐다. 영화 속에는 힘이 없어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 ‘북’,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유신’, 일진

무리 속에서 방관자로 남아 있던 ‘호성’ 등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인이 등장해 현실적인 신앙의 고민을 보여준다.

◆성장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펼쳐지는 ‘북’의 변화

영화는 소년가장이자 교내 권력 집단의 표적이 된 ‘북’이, 비밀 임무를 띠고 학교에 잠입한 격투기 실력자 ‘유신’을 만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중심에 둔다.

처음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북이, 조력자들을 통해 무술을 배우고 스스로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적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된다.

최지은 감독은 “주인공 ‘북’의 여정을 통해 크리스천 인생 전반을 비유하고자 했다”며 로마서 5장 8절을 영화의 핵심 메시지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 오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쉽게 잊는다”며 “영화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크리스천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기



액션 기독교 영화 '힘'의 한 장면 ©영화 스틸 컷

획했다”고 말했다.

감독은 또한 여러 종류의 ‘힘’이 등장하는 설정에 대해 “학교에서 권력을 가진 빌런 캐릭터부터, 싸움 실력, 체력, 지력, 강력 등 다양한 힘들이 나온다”며 “궁극적으로 관객이 생각해야 할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학원 액션 장르를 통한 새로운 기독교 콘텐츠 실험

‘힘’은 상업영화에서 볼 법한 학원 액션 장르의 요소를 적극 활용해 기존 기독교 영화와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한다. 제작진은 “청년층이 쉽게 소비하는 OTT·SNS 기반의 빠른 콘텐츠 흐름에 맞춰, 긴장감 있는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복음 메시지

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진은 기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기 쉬운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며 “‘힘’이 신앙적 메시지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대안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객 반응과 제작진 간담회 현장

개봉 첫 주차 기준 네이버 관객 평점 9.93(12월 2일 기준)을 기록하며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관객들은 “학생물인데도 재미있었다”, “액션이 많아 지루하지 않았다”, “기대보다 훨씬 재밌다” 등의 평가를 남기며 작품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최지은 감독과 손주열·송성사 배우 등



주요 출연진은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카페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작 과정을 공유했다. 감독과 배우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작품 전반에 신앙적 고민과 진정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학교폭력이라는 소재 때문에 제작 초기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며 “기독교 영화로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오해받을까 우려했지만, 지속적인 소명 과정을 통해 15세 관람가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기도로 이뤄진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며 제작 기간 내내 있었던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들을 전했다.

◆현실 속 기독교인의 다양한 모습 반영

영화는 ‘완벽한 크리스천만을 등장시

키지 않는다. 감독은 “현실에는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인이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화를 통해 이러한 보편적인 고민을 구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인공 북 역시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며, 주변 인물들 중엔 기독교인이면서도 비행에 휘말리는 인물도 있다. 감독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계기를 얻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영화 ‘힘’은 현재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상영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단체 관람 신청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최승연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세계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105회) 3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용)	10 장준혁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배스-김형진 30 생명의 말씀 성경의새바람-김승욱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20 행복한 쉼터 한중사랑 (서영희)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목)	1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35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901회)	00 생명의 양식 삼승(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37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6회)
	7:00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50 생명의 말씀 청원산남-이창교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20 행복한 쉼터 한중사랑 (서영희)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목)	30 휴먼네트(50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5회) 40 찬양예배 주남개 말기는 시간(1681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오전 8:00	20 우리 교회는 지금(25회)	20 힐링송 3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 (소문수)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559회)	00 하나님의 음성(98회)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95회) 창세기 4강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이시아 9강 황성수 목사	0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30 비전설교 선한목자 (김다위)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우교회)(15회) 40 Q&A 107 소요리문답(58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6회)	10 새롭게사서(11372회) 김교준 권사 2부	00 THE 궁금(40회) 치유와 도우심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34회)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박찬열 목사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예배 이영훈 목사	20 휴먼네트(58회)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뉴저지은누리교회-(4회)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2(1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60회)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1:00	0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50 바이블 프로젝트	30 행복한 쉼터 화강 (윤호균)	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383회) 50 예수동행일기(3회)	00 만나는 교회(16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92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2강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가응답하는 사람들 30 C재널 매거진 굿데이(342회) 5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39회) 사기치는 세상
	12:00	00 CTS뉴스 20 신앙예배이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만	00 GOODTV 뉴스 30 사랑의 메시지 미라나타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20 [말씀] 권운 목사(시애틀형제교회)(524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동행	00 행복한 쉼터 군포사랑의 (성관용) 30 행복한 쉼터 높은뜻정의 (정재상)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38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3회)	2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12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30 말씀의 창 구례제일교회 김영석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88회) 50 오마이갓생(6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2월 03일 2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370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롭게사서(11037회)	00 백석의 선택(25회)
	오후 15:00	10 구자의 목사의 트롯 찬양교실(1회)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20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2월 03일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강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성문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사랑의 메시지 수영로 (이규현)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2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07회)	10 성지가족(14회) 50 더 콜링(138회)	00 내 삶의 행보(18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17:00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삼 3부 미라클	0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 (오영대) 5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0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42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62회) 5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인)	0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이룰-선우 웅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20 다큐 더 로드 40 더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2024 목회사관학교(2회) 50 2025 선교한국대회 <세상의 희망 예수>(2회)	00 TV강단 한성(도원목) 30 TV강단 남양주한미음(남상진)	30 말씀의 창 선교중앙교회 박태권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편성 없음)	00 거룩한 돛 세운의 시간(36회) 30 TV강단 정통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예스스 1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리 (차영아) 40 사론의 꽃 필 때	20 RE바이블(5회)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146회) 5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당(고경환)	3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업(39회) 사기치는 세상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가수 원혁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95회) 창세기 4강 50 살롬 뿔뿔(1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55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이시아 9강 황성수 목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고한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4회) 50 예수동행일기(3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사서(11372회) 김교준 권사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9회) 주윤석 목사 두 번째 11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 창조주를 기억하라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3회)
저녁	23:00	10 더 메시지 시즌4(5회) 청주상당교회	30 이단 사이렌	10 J.D. 그리어의 퍼스트(2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2월 03일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10 맨투맨 처치2(10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40회) 50 찬양예배 주남개 말기는 시간(1681회)	00 이석 목사의 일여버린 복음을 찾아서(235회) 50 리바이즈 워십
	24:00	00 Calling GOD(2388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명사들의 명강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661회)	10 CBS 아카데미 쇼(181회)	00 사랑의교회 하-하님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 박찬열 목사 4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사도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10 예배실황 한소망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이홍조 목사(갈보리교회)(353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45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2회) 40 성경의 시대(17회)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풀렸던 이야기(48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00	30 사인사색 조해련 집사	10 오 자유예!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69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25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이시아 9강 50 위대한 발걸음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D. Greer's First(2회) 30 [말씀] 류영렬 목사(와성통중앙장로교회)(285회)	00 율포원(688회)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30 네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령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배 (손재홍)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11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94회) 마태복음 7강 50 CBS 교회사식(102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 권통 이름 목사의 성경 맥잡기(449회) 고린도전서 7강 맥잡기 2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